**2020-12-28 멘토링 일지**

앞부분 (현상) -> 해당 부분이 너무 길다. 이 전체 현상을 2~3 페이지로 줄여야 할 필요 있음.

대학생 숫자는 별 의미 X

팀 프로젝트의 진행을 보여주는 흐름도에서, 프롬노드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 보여주는게 좋지 않을까? (어느 문제점에 집중할지)

흐름은 나중에 살려도 되는 부분,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 초반 부분처럼 문제들을 간결하게 제시하는 게 더 좋을 것 (적어도 해동 창업 경진대회의 특성만을 보더라도)

협업 규칙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 -> 리포트 제작/발표자료 제작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부분. (리포트 제작/발표자료 제작부터 원하지 않는 불편함이 생김 -> 왜? -> 이유 -> 이후 해결책까지)

일하는데 있어 파일(보이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대화(보이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설명을 듣는 대상을 고려하자! 팀 프로젝트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시작을 해 보자

600개의 파일들은 (이때 파일 – 대화를 제외한 순수한 파일) 서로 연결되어있지않다. -> 이 파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힘들고, 플랫폼이 나눠져있기에 600개의 파일들을 전부 뒤져보는 6000번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파일의 흐름이 잡혀있지 않고, 뒤엉켜 있기 때문 -> 이들의 흐름을 잡아주고, 연결시켜주는것이 바로 Fromnode이다.

이제 솔루션

연결에 대한 How?

단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 작성 – 업로드 – 노드 생성)

단순히 광고를 언급하는것과, 스폰서가 돈을 내게 하기 위해 광고를 언급하는 것 (학생에게 돈을 뜯지 않겠다)은 다르다!

MVP는?

우선 솔루션 끝에 한 장 넣으면 될 듯? MVP 테스트로 인한 결과들이 나왔다. 정도로!

비대면, 단기 프로젝트, 비영리.

컨택 포인트 이야기는 넣어도 좋습니다

Problem, Solution, BM 해결 + 소비자 반응(MVP) 해결 -> 이제는? 우리가 돈 받으면 무슨 일 할거니? 코딩 동아리 400명 대상으로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를 할지(베타 테스트) 등 언급

Problem ,Solution에서 90% 이상 해결하고 갑시다